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뉴욕에 구축한 패션 쇼룸 '더 셀렉츠'의 첫 번째 프로젝트 '더 셀렉츠 x 레드벨벳' 컬렉션을 공개했다.

K스타일 글로벌 확산 '더 셀렉츠'

뉴욕에서 핀 K패션×K팝... '더 셀렉츠×레드벨벳 컬렉션'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뉴욕에 구축한 패션 쇼룸 '더 셀렉츠(The Selects)'의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 '더 셀렉츠×레드벨벳(The Selects×Red Velvet)' 컬렉션을 22일 공개했다.

◆ 세계 패션 중심에 선보인 K패션... 현지 바이어 및 관계자들 관심

작년 9월 뉴욕패션위크 기간에 공식 오픈한 더 셀렉츠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패션의 메카 뉴욕에 마련한 패션 전문 쇼룸이다. 해외 시장이 주목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10개가 엄정한 선별을 통해 입점, 한국 패션에 관심

있는 현지 바이어와 패션 관계자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더 셀렉츠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예고돼 큰 기대를 모은 이번 컬렉션은 더 셀렉츠 입점 브랜드 중 5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레드벨벳의 멤버 5명이 함께 작업한 의상으로 구성됐다.

▲히든 포레스트마켓(Hidden Forest Market) x 예리 ▲노양(NOHANT) x 슬기 ▲라이(LIE) x 아이린 ▲소윙 바운더리(SWBD) x 웬디 ▲분더카머(WUNDERKAMMER) x 조이가 각각 협업해 디자이너 브랜드의 스타일과 멤버의 개성을 조화롭게 풀어낸 후드와 맨투맨 티셔츠, 아우터 등을 선보였다.

◆ 북미 투어중인 레드벨벳, 더 셀렉츠 방문해 축하와 응원 메시지 남겨

특히, 지난 16일에는 북미 투어공연 중인 레드벨벳 멤버들이 뉴욕 맨해튼 소호에 위치한 더 셀렉츠를 직접 방문해 이번 컬렉션의 성공적인 런칭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한편, 더 셀렉츠는 입점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현지 판매,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통해 한국 패션의 실질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문진은 "팝업 스토어, 아티스트 전시회 등 패션과 연계된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뉴욕 현지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더 셀렉츠가 K스타일 글로벌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제 문제 · 세계 질서의 이면 분석한 책 '호평'

"실패한 국가란 정부가 자국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영토 통제에서의 이러한 공백은 안보상의 문제를 가져온다. '실패한 국가' 혹은 '붕괴된 국가'는 이중의 지정학적 도전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상실했다. 국가란 영토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부를 말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 실패한 국가는 더이상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존재에 의문이 제기된다"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소장의 '지정학: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번역·출간됐다. 국제 문제·세계 질서의 이면을 분석한 책이다.

한때 지정학은 과거 제국주의의 학문, 나치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지정학은 냉전 종식과 함께 다변화·다양화되는 국제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틀로 이용되고 있다.

보니파스는 계속되는 분쟁과 내전, 급격하게 재편되는 세계질서의 중심에 지정학이 있다고 말한다. "패권 전쟁으로 확대

된 미중 갈등, 분열하는 유럽과 독주하는 미국, 강도는 약해졌으나 전 세계에서 고착화되는 테러리즘, 난민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지중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해 분쟁과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내전까지, 지금 세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지정학을 알아야 한다"

"지정학이 서점, 도서관, 텔레비전 화면과 신문 지면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습격하고 있다. 이제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모든 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 아니, 모든 것이 지정학이 되어버렸다. 강대국 간의 경쟁, 학문의 전통적인 토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천연자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첨단 기술, 우주 공간과 극지방, 세계 스포츠 경기, TV 드라마, 여행, 사람들의 감정과 노동조합의 투쟁 그리고 종교, 폭동, 기아, 포도주, 대도시 주변 혹은 정당의 내적 재구성 문제까지 지정학을 둘러싸고 열린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이데올로기적으로 나치즘과 너무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외면 받던 지정학이라는 단어는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상 생활의 특정 분야에까지 출몰하고 있다" 최린 옮김, 292쪽, 1만6000원, 가디언 /뉴시스

무분별한 서울시 재개발에 예술가들 반격?... '박원순 개인전'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술작가로 데뷔시키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프로젝트팀 '서울-사람'은 '박원순 개인전'을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을지로 상업화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를 기획한 작가 최황은 "서울-사람은 서울시의 개발 담론에 관한 문제의식을 느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프로젝트팀"이라며 "삼승옥, 오세린, 일상의실천, 정용택, 차지량, 한정림, CMYK 등 총 8팀(11명)의 예술가들이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중 벌어진 도시재생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문제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와 서울의 현주소를 조명하는 기획전으로 펼친다.

각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시행정과 문화 예술관을 조명하고 서울시의 사업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를 '박원순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규정하면서 박 시장을 미술작가로 데뷔시킨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의 어시스턴트를 자처하는 작가들은 각각 영상, 사진, 공예, 설치, 미디어 인터랙티브 등의 시각예술 작품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60대 중년 작가로 가정한다. 그



과정에서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 개인적 이상을 투사하는 정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박원순 개인전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parkwonsoon.solo.exhibi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서 판소리로 만난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전북지역 독립 영웅 창작 특별공연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북 지역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북지역 독립 영웅 창작 판소리' 특별공연이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국가보훈처 전북동부보훈지청이 주최하고 광복회 전북지부가 주관하는 창작 판소리 특별공연이 지난 22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우리의 소리로 100년의 함성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의병장 이석용(임실)·민족 대표 33인에 포함된 백용성(장수)·3·1운동의 정신적 지주 문용기(익산)·독립운동가

백정기(부안)·전주 만세운동 주역 신흥·기전학교 학생 등 전북 출신의 많은 애국지사의 이야기가 우리 겨레의 열과 혼이 담긴 판소리를 통해 선보였다.

공연을 관람한 300여 명의 시민도 100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열사들의 삶과 전주 3·1운동의 자취와 업적을 기억하며,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전북 독립 영웅 창작 판소리'가 공연으로 열리기까지 많은 시민의 후원이 뒷받침됐다.

또 김용택·안도현 시인, 신귀백 작가, 김병용 소설가 등 전북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재능

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사설을 작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인 안숙선·왕기석·방수미·박애리·이지람 명창이 창작과 공연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창작 판소리 외에도 해일 살풀이와 풍물 공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합창댄스와 만세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과 3·1운동의 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을 주제로 창작 판소리 공연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